

F.B.I EXECUTIVE REPORT

ON GLOBAL BUSINESS AND ECONOMY





Contents May 23, 2012

Biweekly Report

- 2** China's Soccer Moms Want SUVs, Too
박은영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- 5** What Happens When the Next Too-Big-to-Fail Bank Goes Under?
전주영, from TIME
- 8** The Philippines Astounds the Skeptics
임소연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- 10** Is the Stock Market Widely Overoptimistic?
김효진, from TIME
- 12** China Eyes Japan as the Land of Opportunity
김령래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
Cover Stories & Special Report

- 15** China's Growth Slow, and Its Political Model Shows Limits
조경흠, from The New York Times
- 18** Everyone's Problem: Looking Beyond the Wal-Mart Bribery case
김시연, from Knowledge@Wharton

China's Soccer Moms Want SUVs, Too

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 \(2012.05.03\)](#)

* 요약자: 박은영 (evenstar@hanyang.ac.kr) * 키워드: 중국 중산층, 타이거 맘, SUV

“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SUV의 가파른 성장세”



□ 최근 중국 자동차 소비시장은 기능이 다양하고 가족지향적인 차량을 선호하는 추세

- 이처럼 유용한 차량을 원하게 된 배경에는 '여성'이 있음
 - 중국의 '타이거 맘' 집단은 중국의 SUV 시장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원동력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는 집단
 - 미국에서는 '사커 맘' 집단으로 대표되며, 이들은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가족지향적인 차량을 원하여 SUV를 선호
- 여성들은 SUV로 자녀들을 학교에서 학원, 집까지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며, 그 외에는 장을 보고 식료품을 운반할 때 사용

타이거 맘

호랑이 엄마(Tiger mother, 또는 Tiger Mom): 에이미 추 예일대 법대 교수의 책 '호랑이 엄마'에서 유래한 단어로, 자녀에게 높은 성취를 요구하며 호랑이처럼 무섭게 자녀를 압박하는 아시아계 자녀 교육법을 지칭한다. 대립되는 개념으로 자유분방형 '곰 아버지(Bear Daddy)'라는 표현도 나왔다.

□ SUV의 판매급증은 2005년 이후 중국 자동차 시장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

- 중국자동차제조협회 자료에 따르면, 중국의 2011년 총 자동차판매는 전년대비 2.5% 성장하는데 그쳤으나 SUV의 경우 전년대비 20% 증가율을 기록
 - 이는 전체 자동차 수요 증가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, 전체 증가율의 10배에 달하는 차이
- 중국의 SUV 시장은 다른 종류 차량들의 성장을 압도하며 계속해서 성장 중
- 이러한 SUV 시장의 성장 요인은 중국의 중산층 인구 증가에서 찾을 수 있음
 - 현재 중국의 중산층 인구는 약 3억 명 정도로, 10~15년 후에는 이 인구가 약 6~8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

□ 이러한 추세에 따라 많은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중국 내 SUV 생산에 매진 중

- 포드 자동차는 충칭에 새로운 공장을 만들고, 아이가 있는 가족을 겨냥한 SUV 제조를 계획 중
- BMW, 포르세 등 자동차 제조 회사들도 지난 4월 말 베이징에서 개최된 모터쇼에서 새로운 SUV를 선보임
- 이전까지 SUV에 전혀 관심이 없던 회사들도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SUV 모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

□ 이처럼 SUV 시장은 향후 중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 시장의 한 분야가 될 전망

- 더 많은 가정에서 두 번째 차량을 구입하는 추세에 따라, SUV 차량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

- 또한 SUV는 중국 중산층의 로망으로, 급증하는 중산층 인구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큰 SUV 시장에서의 자동차 제조 회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**FBI**

What Happens When the Next Too-Big-to-Fail Bank Goes Under?

* 기사출처: [TIME \(2012.05.11\)](http://www.time.com)

* 요약자: 전주영 (junjy9111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거대 은행, 금융개혁법안

“거대 은행들의 연쇄 붕괴를 막기 위한 FDIC의 새로운 계획”



- 미국의 FDIC(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, 연방예금보험공사)가 거대 은행 통제 계획을 발표
 - 2008년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이자, 위기 발발 후 더 비대해지고 서로 긴밀해진 거대 은행들의 연쇄적 붕괴 방지 목적
 - 2010년 통과된 Dodd-Frank 금융개혁법안은 재무부와 FDIC에게 은행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부여
 - FDIC의 새로운 계획은 금융안정성과 신뢰성, 실행가능성을 골자로 하고 있음

□ 거대 금융기관, 특히 거대 은행들의 지주회사를 관리하기 위해 '리시버제도' 도입

- 이 방법의 의의는 계열사들이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
 - 금융계약을 자체적으로 맺고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
 - 한 거대기업의 파산이 다른 기업들의 연쇄적 붕괴를 야기하는 도미노 효과를 방지
- 경영난에 빠졌을 때는 지주회사들을 리시버제도에 맡긴 뒤, 지주회사의 자산을 새로운 회사로 이전하고 계열사들의 결제 능력을 유지
 - 이전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새로운 회사의 경영 위임, 주주들의 경영 권한 박탈을 기조로 함
 - 기업의 주주들은 일반적인 파산과정과 비슷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

리시버제도(Receivership)

주식회사가 경영난에 빠졌을 때,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리시키는 제도. 파산절차를 따르면, 매우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밖에 없고 무형자산(영업가치)도 소멸하여 주주, 채권자가 큰 손해를 입는다. 오히려 재건할 전망만 있다면 경영을 계속하면서 정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. 본래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로, 그 후 미국에 보급되어 기업정리에 많이 이용되었다.

출처: 네이버 백과사전

□ 새로운 은행들이 변화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Orderly Liquidation Fund(강제청산기금) 조성

- 기금이 입은 손실은 파산한 기업의 회복된 자산이나 대형 금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상환
 - 일반 세납자들이 은행구제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한 대책
- 연결된 금융기업들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긴급 화폐를 지원
 -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같은 금융 체계 전반에 걸친 붕괴 방지 목적

□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미국정부와 해외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

- 미국 부실 기업들의 계열사 대부분은 해외에 위치

- 행정적 불협화음이 야기하는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정부와 해외정부 간 협력이 요구됨
- 미국 금융기관들의 자회사 대부분이 위치해 있는 영국과의 긴밀한 관계 조성이 특히 강조됨

□ FDIC의 계획에 대해 공화당은 강력한 반대 표명

- 2011년 하원금융위원회 공화당원들이 FDIC의 정책을 반대하는 보고서 발표
 - 파산한 금융기관들이 리시버제도 관리에 들어갔을 때, 일반 세납자들이 은행의 손실 문제에 연관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지적
 - 극단적으로는, 국민들이 부실 은행들의 채권자들을 대신 뒷수습해주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
- 하지만 현재로서는 거대 금융기관들의 단계적 축소만이 향후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**FBI**

The Philippines Astounds the Skeptics

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 \(2012.05.03\)](#)

* 요약자: 임소연 (cian92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필리핀, 경제성장

“부정부패 척결과 인프라 구축으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얻은 필리핀”



□ 성장이 부진했던 필리핀 경제가 최근 경제성장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

- 침체되어 있던 필리핀의 경제 지표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
 -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선진국인 독일 수준으로 감소
 - 외환보유고가 4년 만에 2배로 증가
- 객관적 지표 상승으로 인해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필리핀의 신용 등급을 상향조정
 - 이에 따라 필리핀 내 투자도 증가하여 주가가 신흥시장 지수보다 더 높은 폭으로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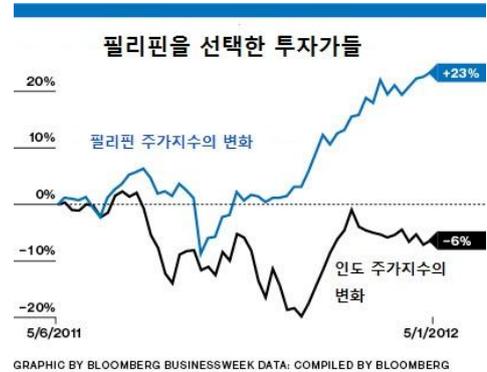
□ 필리핀의 최근 경제성장에는 현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침

- 전 정권부터 지속되어온 부정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

- 공공부문 입찰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 승리가 결정되면 즉시 발표하는 시스템 도입

-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을 위해 160억 달러의 자금 조성

- 기본 공공서비스인 보건 및 교육 부문 지원
- 사회적 기반 시설인 철도, 항공, 고속도로 등 교통망 발전에 투자



- 개혁을 통해 적자를 줄임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

□ 그러나 필리핀의 경제성장은 아직 불완전한 상태에 머무름

- 경제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정부패 척결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 함
-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직접투자유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투자등급을 부여하는 데 아직까지 주저
 - 이는 필리핀의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4.2%로 주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

□ 그럼에도 향후 필리핀의 성장 잠재력은 높음

- 현 아키노 정부의 끊임없는 개혁으로 인해 곧 부정부패 척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
- 중국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초국적 기업들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
 - 이는 필리핀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 **FBI**

Is the Stock Market Widely Overoptimistic?

* 기사출처: [TIME \(2012.05.15\)](#)

* 요약자: 김효진 (khj1227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**주식시장, 위험관리**

“미국 주식시장의 지나친 낙관주의”

□ 미국 주식시장이 최근 호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투자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방향으로 흘러감

- 지난 며칠간 소폭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미국의 주가지수는 경기 회복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
-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에 주가가 20% 가량 상승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향후 주가를 전망

□ 하지만 현재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불안 요인들이 존재하며, 특히 유로존 실패와 그에 따른 장기 경제침체가 우려됨

- 그리스는 선거 이후 정치적 혼란과 함께 디폴트 위기가 증폭되고 있고, 또다시 상승한 스페인 국채수익률은 스페인의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반증
- 유로존의 경제적 핵심 축인 프랑스와 독일의 경제 사정도 정치적 요인들로 인해 불투명
 - 프랑스의 신임 대통령은 재정 긴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, 독일 정부는 독일 최대 지방선거 패배로 타격을 입음
- 유로존 17개국에 대한 경제 전망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, 전문가들은 유로존의 침체가 미국 경제의 불황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고

□ 미국 내 여러 정치적 사안들 역시 주식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
- 다수의 주(州)정부들이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, 최근 발생한 연금기금 파산 사태는 주정부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킴
- 미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 정책의 합법성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, 정책이

부분적으로 폐기될 경우 직접적인 경제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

- 이 정책이 폐기될 경우 의료보장제도 전체의 붕괴가 야기될 수 있으며, 이는 경제적 혼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

- 전(前) 정부의 감세정책 만료로 별다른 정책 개정이 없을 경우 기업은 주가 상승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, 전체적인 경제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

□ 국제적인 요인 또한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

- 이란사태로 인한 중동지역의 긴장은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으며, 이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
- 중국의 성장둔화는 부동산 시장위기로 발전할 수 있으며, 이와 관련된 부채를 안고 있는 은행들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

□ 주식 투자자들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위험요소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함

-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경제 전망에 대한 예측보다 단기적인 자금 흐름에 의해 움직이므로 외견상 이러한 위험요소들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처럼 보임
 - 경기부양책과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한 유동성 증가는 단기적인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짐
-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가치 있는 투자시장이므로, 투자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포트폴리오 관리, 자산의 현금보유율 증가 등을 통한 위험관리에 철저해야 할 것 **FBI**

China Eyes Japan as the Land of Opportunity

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 \(2012.05.10\)](#)

* 요약자: 김령래 (rlafudfo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중국기업, 일본시장

“일본 시장 진출 확장을 위한 중국 기업들의 노력”



□ 전세계 다양한 소비 시장에서 연전연승을 달리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유달리 일본 시장에서는 고전

- 중국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통신회사 Huawei는 유럽, 인도, 중동 등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으나 일본에서는 매출 7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
- 중국은 2011년 대 일본 무역 적자 190억 달러를 기록
 -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기계와 부품 등의 고가 제품을 다량 수입하는 반면 일본에게는 의류, 식품과 같은 저가 제품을 주로 수출

□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은 일본 소비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투자 중

- 중국의 가전제품 업체인 Haier는 교토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, Haier 아시아

본부를 오사카에 두겠다고 발표

- 중국 PC업체 Lenovo는 일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NEC와의 새로운 합작에 1억 7천 5백만 달러를 투자
- 통신장비와 단말기 제조업체인 ZTE는 일본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스마트폰과 4G 장비 프로모션을 진행 중

□ 또한 중국 정부도 일본 정부와의 무역 협상을 통해 일본 내 중국산 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

- 5월 12일 한국, 중국, 일본 3개국 무역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유무역 협정에 관해 논의한 바 있음
- 작년 12월에는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일본 요시히코 노다 총리를 베이징에 초대
 - 양국 총리는 상호간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미국 달러보다 그들의 통화를 사용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중국과 일본의 깊은 유대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

□ 일본이 비록 디플레이션과 인구정체 현상을 겪고 있지만 거대한 경제 규모, 높은 품질수준 등으로 일본 시장은 중국에게 여전히 매력적

- 일본의 2011년 국내총생산은 5.9조 달러로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 규모에 버금가는 거대한 경제
 - 일본은 국가 정책상 네트워크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며 이 규모를 고려할 때 일본의 소비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
 - 또한 일본의 탄탄한 기초시설은 중국 기업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
- 중국 기업이 일본 기술시장이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수준과 기술수준을 충족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
- 일본의 핵심 부품기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경쟁 시장에 맞춰 디자인된 중국 상품은 세계적으로도 성공할 것으로 기대

□ 이러한 기대와 동시에 일본 진출을 꾀하는 중국 기업들에게는 고급스럽지 않으며 생

소한 브랜드 이미지, 임금 상승 압박 등의 문제 해결이 요구됨

- 일본 소비자들은 중국 브랜드에 친숙하지 않으며 할인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
 - 중국 기업들 역시 임금 상승 압박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더이상 낮은 가격에만 의존할 수 없음
 - 저렴한 이미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Haier는 Aqua라는 독립 브랜드로 세탁기를 판매
-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일본 기계, 부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없음

□ 중국 기업의 일본 진출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

- 2011년 일본의 적자는 2010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
- 수익이 감소한 파나소닉, 샤프와 같은 일본 대기업들의 암울한 전망은 중국 기업들에 제품 판매의 기회 부여
- 중국 기업들은 애플과 삼성이 지배하고 있는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일본인 기호에 맞는 스마트폰을 제작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음
 - ZTE는 일본인이 사우나를 좋아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새로운 방수 스마트폰을 제작할 예정 **FBI**

China's Growth Slow, and Its Political Model Shows Limits

* 기사출처: [The New York Times \(2012.05.10\)](#)

* 요약자: 조경흠 (polarbear5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중국모델, 정치체제

“중국의 경제성장을 하락, 차이나모델의 한계인가”

□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면서, 중국은 '중국 모델'이라는 기치 아래 중국 정치 체제의 장점 강조

- 중국은 그 동안 소위 '중국 모델(China Model)'이라 불리는 특수한 체제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
 - 공산당 일당의 독재정치와 국가주도의 자본주의가 결합된 형태
- 그러나 중국 모델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
 - 국영기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가 최근 맞닥뜨린 성장 둔화에 대해 중국 지도부 역시 고심

□ 보 시라이(Bo Xilai)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듯 최근 중국 정치는 혼란스러운 상태

- 충칭시 당서기였던 보 시라이가 정치 스캔들로 인해 당서기직에서 해임됨
 - 덩 샤오핑 이후 중국 지도층의 권력 승계 및 승진은 전통적으로 공산당 원로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이뤄져 왔음
- 보 시라이는 인민당원과 강경파의 지원을 얻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 승진을 시도했고 이는 동시에 공산당 원로들의 권력 약화를 보여줌
- 한 전문가는 많은 정치인들이 보 시라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질 것이라 예상
 - 올해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차기 중국 지도자들은 뉴스 등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홍보

- 뿐만 아니라 공산당 일당 체제하에 다수의 계파가 생겨 권력 다툼이 발생했고, 이러한 사건들은 올해 예정된 중국의 10년 주기 권력 승계에 영향

보 시라이(Bo Xilai) 사건

지난 해 11 월 영국인 사업가 닐 하이우드가 중국의 호텔에서 번사체로 발견됐다. 당시 중국 공안은 단순 과다음주로 인한 사망으로 규정하며 부검없이 화장했다. 하지만 보 시라이의 심복이던 왕리쥘 충칭시 공안 국장은 보 시라이의 부인이 하이우드 살해를 주도한 사실을 포착하고 보 시라이에게 조사를 요구했다. 이에 보 시라이는 왕리쥘을 공안국장에서 해임했다. 이에 신변 위협을 느낀 왕리쥘은 쓰촨성 청두의 미국 총영사관으로 망명을 신청했다. 그는 보 시라이의 비리 및 중국 최고 지도부에 대한 정보를 다수 확보해 들고갔다. 그러나 미국은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왕리쥘은 중국 국가안전부로 넘어가 자신이 갖고 있던 보 시라이의 비리 정보를 모두 제출했다. 이를 통해 보 시라이는 충칭시 당 서기직에서 해임되었다. 이후 추가 조사에서 보 시라이와 하이우드와의 밀접한 관계가 밝혀졌다. 하이우드는 보 시라이를 이용해 중국 내 이권을 차지했고, 보 시라이는 하이우드를 통해 재산 약 1 조 4000 억원 규모를 해외로 밀반출했다. 따라서 보 시라이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그의 부인은 타살사건 증거가 드러나 사법기관에 구속되었다.

□ 중국 내 사회 불안 역시 이러한 정치, 경제적 문제를 심화

- 대표적으로 중국의 강경 정책에 불만을 품은 티베트 승려들의 분신과 중국의 인권변호사인 천광청(Chen GuangCheng)의 미국 망명 사건이 있음
 - 천광청 사건은 중국과 미국의 외교적 마찰을 촉발
- 전문가는 2010년 중국 내에서 발생한 인민들의 시위를 18만 건으로 추정
 - 이는 대부분 극심한 빈부격차가 주 원인
 - 광둥성 우칸(Wukan)에서는 공무원의 불법적 토지 강제 몰수에 반발하여 시위 발생
- 시위들은 주로 공안의 강제 무력 진압에 의해 해결
 - 중국 정부는 치안유지예산에 전년대비 12% 증가한 1,110억 달러, 국방비에 50억 달러를 증액할 것이라 발표
 - 왕양(Wang Yang) 광둥성 당서기는 우칸 사건을 협상으로 해결하면서 현재 중국 정부의 무력 대처 방법을 암묵적으로 비판

□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운영은 보 시라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또 다른 문제

- 중국은 국영은행의 무제한적 대출을 국영기업에 지원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

행했으며, 이는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뼈대 역할

- 충칭시는 수많은 SOC 프로젝트를 통해 전년 대비 16.4%의 성장을 기록하며 중국 내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

- 하지만 대출로 인한 빚은 상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

□ **전문가들은 최근 드러난 중국 정치체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현 체제에 대한 구조적 점검의 필요성 역설**

- 정부가 금융에 대한 통제를 해체하여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켜야 함

- 환율 및 이자율의 자유로운 변동과 국영기업 제재, 그리고 사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이 필요

- 또한 내수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사기업을 촉진시키는 모델 필요

- 이러한 변화가 시장의 힘을 강화시켜 경쟁 촉진 및 부패 감소를 가져올 것

□ **하지만 중국 지도층에게 개혁의 유인이 존재하지 않음**

- 현재 시스템은 공산당 임원, 공무원, 군인, 국영기업 경영자들의 이익을 보장

- 국영기업 또한 현상유지를 원하며 선·후진 지도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

□ **현 중국의 경제 상황 역시 이런 구조적 개혁을 지체시키고 있음**

- 올해 1/4분기 성장률은 8.1%로 하락했고, 원자바오 총리 역시 2012년 경제성장 예측치를 7.5%로 낮추어 예상

-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와 해외 수출 모두 감소 추세

- 개혁 시 발생할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과 현재의 극심한 빈부격차도 중대한 고려사항 

Everyone's Problem: Looking Beyond the Wal-Mart Bribery Case

* 기사출처: [Knowledge@Wharton \(2012.05.09\)](#)

* 요약자: 김시연 (rea1200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월마트, 부패, 기업윤리

“월마트 사례를 통해 바라 본 다국적기업의 뇌물 수수 문제”

□ 세계 최대의 소매업체인 월마트의 뇌물 수수 혐의는 경제적, 도덕적 기업가치의 손실을 야기

- 월마트 멕시코 지사의 임원들이 점포 설치 허가를 얻기 위해 총 24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불법으로 지불
- 2005년 고위 경영진의 사건 은폐에 따른 벌금과 5%의 주가 하락으로 경제적 손실 발생
- 주주총회와 소송을 통해 고위 경영진의 행위를 비판하는 주주들의 행동이 지속
 - 뉴욕시 연금기금의 대표들은 6월 주주총회에서 월마트 임원들에게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언급
 - 캘리포니아 주 연금기관은 월마트 혐의가 보도되기 전 임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판매했다며 소송 제기

□ 월마트 사례와 같이 공직자에 대한 기업의 뇌물 살포는 여전히 국제적으로 만연

-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아시아, 라틴 아메리카, 중동 등 다수의 정부에서 공적 재원의 남용, 뇌물 수수, 비공개적 의사결정이 만연
-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특히 멕시코의 지난해 부패지수는 183개 국가들 중 100위를 기록
 - 경제 발달 수준이 현저히 낮은 베닌, 부르키나파소, 말라위와 동일한 순위에 위치
- 월마트의 멕시코 뇌물 수수 사건은 다국적 기업의 경영 윤리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를 제기

□ **한편 미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다국적 기업 경영진들은 부패방지법을 이전보다 중시하는 변화를 보임**

- 여론은 뇌물수수를 용인할 수 없는 경영방식으로 여기며 국제적 기업들은 보다 양심적으로 부패방지법을 준수
 - 기업들은 뇌물이 비도덕적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이라고 인식
- 1977년 해외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을 엄중 처벌하는 해외부패방지법 (FCPA) 제정
- 1990년대부터 국제기관들은 해외부패방지법과 유사하게 그들만의 부패방지협약을 체결
 - 대기업들은 부패방지협약을 더욱 중대하게 생각하며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연례보고를 수행

□ **더불어 세계화와 국제 경제통합의 심화는 기업의 부패 방지 경향을 촉진**

- 지역적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라도 사실상 새롭게 통합된 경제에서의 국제적 협력 환경에 노출
 - 뇌물로 인한 지역적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각국 정부 간의 협력이 불가피
- 세계화로 인해 더 많은 기업들이 부패의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'타인의 문제'가 아닌 '우리의 문제'로 간주
 - 기업은 더 이상 자사를 단일한 회사로 보지 않고 국제적인 공급자, 고용자, 유통자의 네트워크로 인식

□ **이처럼 부패방지과 관련한 다국적 기업의 동향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**

-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운동과 법역 외부의 집행이 증가하더라도 기업의 뇌물 수수 경향에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
- 부패행위는 비밀리에 이루어지며 공개적으로 다루기를 기피하는 주제이므로 지금까지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고 반박
 - 실증적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분석한 동향의 설득력에 의문 제기

-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제삼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, 특정 국가에 대한 자료는 대중의 인식, 조사의 완성도 및 방법론에 따라 가변적이었다고 지적

□ 다국적기업은 부패방지과 관련하여 엄격한 법적 요구사항을 기꺼이 수용할 의무를 지님

- 다국적기업은 전례 없는 규모로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따르는 수많은 이점을 보유
 - 월마트와 같은 거대 기업은 공급자에 대한 권력, 글로벌 소송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이점을 바탕으로 최선의 영업방식을 수행
- 오늘날 다국적기업에 부여되는 엄격한 법적 요구사항은 대규모 기업으로서 누리는 이익에 대한 대가를 의미

□ 규정의 불이행에 따르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뇌물 수수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조직 전체에 부정적으로 작용

- 뇌물을 제공하는 데에서 스릴을 느끼거나 정당한 업무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으려는 경우 뇌물을 제공
- 개발도상국에서는 뇌물 수수를 당연한 영업 방식으로 인식하여 부패행위 지속
- 고위 경영진의 부패 행위를 하위 관리자가 모방하면 결국 기업문화로 이어져 기업에 대한 윤리적 기대가 낮아지는 악순환 가속화

□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문화의 특성상 선물과 뇌물의 구분이 어려워 기업 경영자의 엄격한 행동기준이 필요

- 미국에서 뇌물은 지급에 따른 특정한 보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선물과 명확히 구분
- 반면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호화로운 선물의 제공을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 지역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
 - 지역적 관행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현명한 대처가 필요

- 경영진은 현지의 사업방식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부패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엄격한 행동기준을 세워야 함 **FBI**

FBI는 한양대 경영대학의 비상업적 지식봉사 동아리로,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/경영 이슈에 대한 교내 상호 학습을 위해 동아리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. 만약 외부에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, 교외 지식봉사차원에서 무상으로 공유하고는 있으나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

한양대학교 경영대학

보고서 구독신청 및 변경 (fbi.hanyang@gmail.com)

Advisor: 이웅희,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(victory@hanyang.ac.kr)

Editor in Chief: 김한결 (hankkim87@daum.net)

Associate Editor: 박나현 (nh313131@hanyang.ac.kr)

Copy Editor: 김현수(hahanene00@gmail.com), 이일희 (asahi8769@gmail.com)